재외동포청 **보도자료**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. 10. 19.(월)

전국체전 찾은 재외동포청장…
18개국 동포 선수 1,500여 명 응원

- 재외동포청장 최초 전국체전 현장 방문…동포 선수단 격려
- 18개국 동포 체육인 40여 명과 간담…체육 교류·차세대 참여 확대 논의
- 제주도지사 면담·재일제주인센터 방문 등 지역 동포 현안도 살펴

□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제107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제주를 찾아 세계 18개국에서 참가한 재외동포 선수단 1,500여 명을 응원하고, 동포 체육인들과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.

○ 재외동포청장이 전국체전 현장을 직접 찾아 동포 선수단을 격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

□ 김 청장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에 머물며 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하고, 축구와 테니스 등 재외동포부 경기장을 방문해 선수들을 응원했다.

○ 17일에는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 임원진과 18개국 재외한인체육회 회장, 선수단장 등 40여 명을 초청해 만찬을 갖고 현지 체육활동의 어려움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.

○ 또 체육을 매개로 국가별 동포사회의 유대를 강화하고, 차세대 동포들의 한인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.

□ 김 청장은 “전국체전은 세계 각국의 동포들이 고국에서 만나 우정을 나누고, 하나로 연결되는 뜻깊은 자리”라며 “특히 차세대 동포들에게는

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이어가는 소중한 기회”라고 말했다.

○ 이어 “어려운 여건에서도 동포사회의 화합과 체육 발전을 위해 애써 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”며 “동포 체육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, 국가 간 교류가 지속되도록 힘쓰겠다”고 밝혔다.

□ 한편, 김 청장은 제주 방문 기간 지역의 재외동포 관련 현안도 점검했다.

○ 16일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만나 재일제주인 복지·보은 사업과 제주 거주 동포의 관광통역안내사 양성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.

○ 이어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, 일본 오사카 이카이노 지역 동포들의 1960년대 삶을 조명한 기획전시 ‘시간의 흔적, 거리의 기억’을 관람했다.

붙임 재외동포부 경기 관람 및 동포체육인 환영 행사 사진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총괄과	책임자	과 장	황인성 (032-585-3195)
		담당자	주무관	김경민 (032-585-320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